

## “25개월만에 일상으로” 오늘부터 거리두기 종료

사적모임·다중시설 제한 없고 25일부터 실내 취식  
 마스크 유지·고위험시설 방역은 계속...2주 뒤 재논의  
 사회적 거리두기·방역 체계 개편만 수십 차례 달해  
 광주·전남 누적확진자수 100만·사망자 900명 육박  
 신규 변이·겨울철 유행 등 거리두기 재도입 변수로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2년1개월 만에 잃어버린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 유입 이후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100만 명 가까운 확진자와 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회적 피로감과 불황의 그늘은 일상의 평온함을 앗아갔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신규 변이와 n차 재감염, 겨울·방학·휴가철과 명절 대유행 등 변수들이 적잖아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방역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시간·장소·인원 제한 다 풀고 '마스크만'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카페·식당 등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전면 해제된다. 행사·집회 인원 299인, 종교활동 수용 인원 70%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 등지의 실내 취식금지 1주일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풀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첫 적용된 2020년 3월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다만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와 실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고위험시설 선제 검사와 접촉 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은 유지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2주 뒤 유행 상황을 살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25일 2급

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수순을 밟고 있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대상으로 스스로 등교·출근 등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를 하면 된다. 확진자의 대면, 비대면 진료도 유지된다. 60세 이상 4차접종 예약도 18일부터 시작된다

### ◇광주·전남 거리두기·방역체계 수십 차례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정명령으로 첫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22일. 유행과 종교시설에 보름동안 '운영 제한'을 권고한 이후 수위를 조정해가며 2년 넘도록 유지돼왔다.

같은 해 상반기 3단계 체계가 마련된 이후 11월에 5단계로 개편된 후 지난해 7월 다시 4단계로 간소화했다. 이 와중에 위드코로나, 오미크론 특별방역 조치 등이 내려졌다. 광주·전남에서만 거리두기 조정횟수가 연장, 유지조치를 포함해 30~40차례에 달했다.

2020년 3월 첫 발동 이후 방학과 휴가철인 7월 한 달 간 2단계로 격상됐고, 다시 8월에 1단계로 내려 앉았다가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8월 하순부터 2단계로 강화됐고, 이 때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8월 마지막주부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종교활동과 체육활동, 10명 이상 모임이 모두 금지됐다.

10월에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1단계로 조정됐으나, 겨울철 대유행으로 11월 1.5단계, 12월 초 2단계, 12월 하순 2.5단계로 올라섰고, 지난해 상반기 안정세를 뒤로 하고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며 7월에 3단계까지 격상



화창한 날씨를 보인 17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팜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Good bye 코로나' 문구가 새겨진 호밀밭을 걷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됐다. 연말 이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통제식 방역'은 한계를 맞았고, 자연스럽게 집단면역과 일상전환으로 이어졌다.

### ◇광주·전남 누적 확진 100만 육박, 수차례 큰 고비

2020년 2월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7일 0시 현재 광주가 47만75명, 전남이 51만3157명으로 합쳐서 98만323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3월 이후 발생했다.

요양·교육·유희·복지·종교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에다 휴가철과 5차례의 명절 연휴가 확산세에 기름을 부었고, 신학기 전면등교와 오미크론의 맹위, 검사체계 변화와 대통령선거, 거리두기 완화도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망자도 자연스럽게 늘어 광주가 500명, 전남이 340명으로 누적인원 900명을 향해 가고 있다.

예고없는 대유행으로 고비도 많았다. 대구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1차 유행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광복절 집회 등으로 촉발된 2차 유행, 2020년 말 3차, 지난해 6월 말 4차 유행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광주·전남은 지난해 12월 오미크론이 전복을 거쳐 전남, 광주로 삼시간에 확

산되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됐다. 수도권 오미크론 검출률이 40% 초반일 때 광주·전남은 이미 80%대를 기록하면서 견줄 수 없는 확산세로 이어졌고, 코로나는 '오미크론 전'과 '오미크론 후'로 나뉠 정도도 파급 효과는 컸다.

### ◇"변수 많아 긴장 유지해야...안착 기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하지만 손 씻기와 잦은 환기, 소독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이행을 마치고 안착기로 넘어갈 지 여부는 4주간 유행추이와 새 변이 등 위험성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안착기를 시작할 지, 이행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가 다음달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17일 "대통령직인수위 내부에서도 거리두기와 감염병 등급을 일시 완화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코로나 치료비 5월 하순엔 유료화...안 걸린 사람 손해?

2급 감염병...5월 하순 격리 의무 해제  
 검사·치료 진료 적용 나머지 본인부담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 달 뒤 5월 하순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비·치료비가 유료로 바뀐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져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된다는 소식에 미확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안 걸린 사람만 손해 아니냐"는 식의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이 사라진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됐다.

기자질원자 A씨(34)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어질까봐 조심했는데 방역까지 함께 해제돼 무섭다"며 "운 나쁘게 걸리면 치료비 부담이 상당하지 않겠냐. 경증은 모르겠지만 중증 치료비는 훨씬 고가인 만큼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트위터 이용자 @md\_\*\*\*는 "이제까지 안 걸린 사람들은 이 기세 쪽 타서 평생 안 걸리고 살거나 걸리더라도 5월 이전에 걸려야 한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 @0o\_\*\*\*는 "치료비 자기부담에 지원금도 안 주는 것은 너무하다"며 "여태 안 걸린 사람들은 거리두기 다 풀고 마스크도 벗고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안 해주다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방역정책으로 감염에 인한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는 목적을 달성했다", "감염되면 후유증도 있는데 걸려서 치료비를 받으니 안 걸리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25일부터 4주간 이행을 거친 뒤 7월 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그 동안 1인당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치료비, 검사비 등 각종 국가 지원이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비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먹는치료제에 대해서는 처방대상인 고위험군 확진자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동취재본부

The 24th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 함평 나비 대축제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펴다 (부제: 다시 만나는 나비 세상) **2022. 4. 29. (금) ▶ 5. 8. 일**  
 함평엑스포공원 및 함평읍시가지 제2무대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관광재단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후원 | 환경부

후원 | 전라남도

후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한국관광공사

후원 | EX 한국도로공사

후원 | KORAIL 한국철도